



선 수행의 길잡이 원순 지음 | 법공양 펴냄 | 2만2000원

참선하는 사람의 행실 다져주는 서산 대사 목소리 생생

“예전에 불교를 배워두던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면 말하지를 않았고 부처님의 행실이 아니면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보배로 여긴 것은 오직 대장경에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전하여 가면서 위우는 것은 세속 선비들의 글이요 청하여 지니는 것은 벼슬아치 서풍입니다. (중략) 이 오늘날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배로 삼는 대상이 예전 사람들과 어찌 이라도 다를 수 있단 말입니까?”

서산 대사 휴정(1520~1604) 스님이 <선가귀감>을 지은 이유다. 서산 대사가 서문을 통해 밝힌 ‘저술의도’는 자연스럽게 ‘과연 오늘날은 어떤가?’라는 질문을 낳는다. 5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믿고 지니고 행해야 할 기준점은 바로 ‘부처님’이다. 그렇듯 못한 세태서 서산 대사로 하여금 <선가귀감>을 짓게 만들었다. 선가(禪家)는 참선을 수행방편으로 삼는 사람이 고귀함은 미래의 자기 모습을 비취 보는 거울이다. 참선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믿

고 지니고 행해야 할 ‘키포인트’들을 모아 엮은 책이다. 서산 대사는 이 책을 엮으며 50여권의 경전과 논서 어록들을 참조했다. 그래서 <선가귀감>은 대장경과 조사 어록을 적재적소에 인용하며 참선 공부하는 사람의 행실을 다져주는 서산 대사의 목소리가 생생하다. 서산 대사 자신도 <선가귀감>을 짓게 만들었다. 선가(禪家)는 참선을 수행방편으로 삼는 사람이 고귀함은 미래의 자기 모습을 비취 보는 거울이다. 참선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믿

해서 힘쓰고 또 힘써야 한다”고 타이르고 있다. 서산 대사가 <선가귀감>을 지은 지 500여 년이 지났다. 진리에는 시간이 없으므로 500년이란 세월의 두께도 사실은 무의미하다. 송광사 인월암에서 경전 번역에 몰두하며 틈틈이 세상으로 나와 강의를 하는 원순 스님이 500년의 세월을 관통해 <선가귀감>을 오늘의 언어로 쉽고 알차게 강설했다. 현대불교신문 지 창에 ‘선 수행의 길잡이’란 제목으로 84회에 걸쳐 연재했던 내용을 보완하여 책

으로 낸 것이다. 원순 스님은 현재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위치한 열린선원(02-722-0633)에서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주 수요일 오후 1시에 <선가귀감>을 강의하고 있다. 원순 스님이 <선가귀감>을 풀어 쓴 이유는 무엇일까? ‘그 무엇’ 때문이다. 원순 스님도 그 이유를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다. “빈 길로 둘러가지 않고 화두로 직접 담음을 깨치고자 하는 것이 간화선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증생들은 바로 알지

못하니 자비로운 부처님께서는 ‘그 무엇’을 이해할 수 있도록 팔만 사천 법문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이 없다면 증생들은 ‘그 무엇’에 대해 알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차근차근 ‘그 무엇’에 대해 알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敎)입니다. 이 선과 교를 아울러 성불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가르침이 곧 ‘선가귀감’입니다. 올바른 스승을 찾기가 어려움 요즘 세상에서는 ‘선가귀감’이 바로 선지식이 됩니다.”

임연태 기자

다도의범 고산 스님 지음 | 성보문화재연구원 펴냄 | 1만5000원

잘못된 다법 친절히 설명

책 제목부터 심상치 않다. ‘다도의범(茶道儀範)’. 뜻을 그대로 풀이하면 ‘다례에 있어서 모범이 될 만한 것’을 일컫는다. 그래서인지 책 곳곳에서는 현재 잘못 행하고 있는 다법(茶法)을 바로잡고, 다도의 기원이 불교예법에서 왔다는 점에 방점을 찍어 친절하게 설명하는 부분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저자인 고산 前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이 차(茶)에 관심 갖기 시작한 것은 1975년. 차(茶)의 본고향으로 불리는 하동 쌍계사에 주석하면서 부터다. 일본과 중국의 외래도가 넘쳐나는 것을 본 스님은 전통 다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오랜 기간 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직접 다도를 하며 느낀 경험을 토대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책이다. 특히 <차의 문화사> 편은 신라 이전의 차 문화를 시작으로 신라, 고려, 조선에 이르는 단선 나열이 아니다. 그 시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차에 관한 시를 통해 당대 선지식들이 깨달음에 이르렀던 흔적도 엿볼 수 있게 한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초보자들도 쉽게 차를 마실 수 있도록 다도 시범을 사진과 함께 실어 놓았다.

김주일 기자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 문향희 지음 | 비엠북스 펴냄 | 1만5000원

명상을 삶의 근간으로 삼을 수 있게 안내

원불교는 불교와 어떻게 다른가? 원불교는 어떤 수행을 하는가? 사실 많은 불자들이 원불교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이웃종교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도 막상 기회를 잡기는 쉽지 않다. 원불교역사박물관 학예연구실장 문향희 교무의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은 명상에 대한 원불교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명상의 기초, 숨쉬기 명상, 말하기 명상, 글쓰기 명상, 명상의 통합활용 등 5가지 테마로 엮어진 이 책을 통해 문향희 교무는

원불교의 궁극적인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삶의 근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문향희 교무는 책에서 명상을 하면 좋은 점을 10가지로 간주한다. 경거망동을 하는 일이 차차 없어진다. 육근동작에 순서를 얻는다. 병고와 감소되고 얼굴이 윤택해 진다. 기억력이 좋아진다. 인내력이 생긴다. 착심(著心)이 없어진다. 사심(私心)이 정심(正心)으로 변한다. 자성의 해광이 나타난다. 극락을 수용하게 된다. 생사에 자유를 얻는다 등이다.

임연태 기자

내 무명을 밝히는 깨달음의 노래 김양경 지음 | 혜명 펴냄 | 1만원

쉽게 풀어낸 선시, 깨달음의 지혜와 함께

깨달음의 노래로 불리는 선시는 그 종류가 다양하다. 깨달음의 희열을 표현한 오도송이 있는가하면 자연의 아름다움과 일상을 노래한 경우, 그리고 열반송과 같이 하나의 장르처럼 자리 잡은 선시도 있다. 모두가 불가의 가르침을 체득한 선사들의 깨달음에서 나온 시들로 그 자체로도 음율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깨달음의 지혜를 담고 있다. 저자는 “선시는 그 자체로 아름다운 음악과 같다”고 말한다. 좋은 음악은 그것이 상송이 됐든 판송이 됐든 듣는 이를 편안하게 하고 즐겁게 만든다. 가사를 모두 이해하지 못해도 아름다운 음악의 밝은 기운에 감화되는 것이다. 저자가 20여년이 넘게 불교와 선시 공부를 하며 모든 선시들을 가려 뽑은 이 책은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선시마다 쉬운 한글표기를 해 놓았다. 또한 시 자체를 음미할 수 있도록 한글과 한문 풀이를 장마다 따로 배치해 가독력을 높였다. 특히 각 장은 선시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실과 부처님 말씀을 수필형식으로 풀어내 어려운 선시지만 책장이 술술 넘어가게 만든다.

김주일 기자

입맛대로 먹어라 이석치 · 고은애 공저 | 아스미디어 펴냄 | 1만원

체질에 맞는 섭생법이 건강 유지 비결

자연치유연구소에 몸담았던 저자들이 병 안 걸리고 병 고치려면 입맛대로 먹어라는 독특한 건강법을 제안한다. 저자는 사람마다 입맛이 다른 것은 각 장부의 기운이 크고 작음을 뜻하는 체질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한다. 이 때문에 이론적으로 체질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능에 의해 입맛대로 먹는 것이 오히려 각자 체질에 맞는 섭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단 백설탕, 맛소금, 화학조미료를 사용한 맛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장육부가 튼튼하다면 독성이 강한 약이나 병원치료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지만 만일 장부가 허약하다면 병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 책은 음식의 섭취만으로도 오장육부를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든 음식에는 오미(五味) : 달고, 쓰고, 짜고, 시고, 매운 맛이 숨어 있으며, 이 맛은 인체의 오장육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요구하는 음식을 섭취하면 오장육부가 스스로 건강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책은 우리 몸의 체질, 즉 오장체질이 우리의 장부 및 오미와 직접 연관되어 있어, 체질을 알고 그에 맞는 올바른 섭생법을 실천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공부하다 죽어라	현각 외	조화로운 삶
2	절음 기가게 잘하는 법	청견	붓다의 마음
3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4	하루 108배 내음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월호	아름미디어
5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	불광출판부
6	답답하면 물어라	법륜	정토
7	서장	전재강 역주	운주사
8	행복한 미소	성전	개미
9	사할 100미 100선	허균	불교신문사
10	염불선	덕산	클리어마인드

※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이것이 바로 “우주적 신불교의 진면목”

영산불교 현지궁에서 펴낸 위 불서 3권은 팔만대장경의 진수와 동서고금의 종교철학사상을 뛰어넘어 우리 인간의 확실한 생사관과 절대계의 붓다님들의 소식을 파헤친 이 시대 최고의 보서(寶書)이다. 이 책은 모든 호법선신이 옹호할 것이며, 성종과 나한이 삼재팔난을 제거할 것이다. - 불세존 말씀 -

거룩하고 희유한 미증유의 성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절찬리 판매중
12쇄 발행 !!

개정판 11쇄
370쪽 / 15,000원

존평의 신기원을 연 마스터피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尊評”

보정판 4쇄
489쪽 / 15,000원

위대한 우주적 메타종교, 불교의 법세계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

보정판 4쇄
509쪽 / 15,000원

위대한 이 시대의 고전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책자의 생사관에 대한, 네 영체에 관한, 그리고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의 큰 스님 법설을 통해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살 것이며,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교의 설명으로는, ○ 불교의 교의로는 도대체 판단이 서지 않았던 것이다. 그동안 나는 그저 살았다고 해야 할까..... 나는 이제 현자사 큰스님을 만나 인생의 의미를 뚜렷이 알게 되어 매일 매일 보람을 창조하며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되는지 현대를 사는 모든 이들에게 종교를 초월해서 누구나 이 세 권의 미증유한 성서를 꼭 필독해보시기 바란다.

- 지법대학교 의과대학 주임교수

http://www.hyunjisa.or.kr 판매처 영산불교 현지궁 춘천 본사 Tel 033)243-1787,1795 / 영산불교 현지궁 부산 분원 Tel 051)554-5150